



모체로의 귀의 : <이제 크신 어머니께서 자고깨니>는 윤석남·김 영·박영숙(왼쪽부터) 등 4명의 공동 작품이다.

시사저널 1994.4

# 힘으로 채운 '화폭의 절반'

## 페미니즘 미술전 <여성, 그 다름과 힘> ... 매체·양식 다양한 시도

**경** 기도 용인군 마곡리 갤러리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여성주의 미술전 <여성, 그 다름과 힘>의 관람객은 대개 여성이다. 그들은 꽤 먼 거리를 자동차에 실려 오면서 '남자들이 하는 미술과 다르다'는 전시회의 표제를 생각한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은 이 여성주의 미술전의 관람객들로 하여금 남자들이 이룩해 온 미술사의 전통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는 곧 신화처럼 명멸해간 위대한 화가들 중에 여성 화가의 이름이 매우 적다는 것을 발견한다.

미술관으로 진입하기 직전 관람객들은 붉은 천 아치 2개를 본다. 쇠로 만든 철제 기둥을 봉대로 싸매듯 차곡차곡 감아 올라간 이 붉은 형질 기둥은 화가 김수자씨의 작품이다. 천으로 감싸는 작업은 이 전시회의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보인다. 공백이·삼·칼과 같은 남성적 공격용 무기는 천으로 감싸여 순화되고 있으며, 상처를 보듬어 싸안듯 크고 작은 보자기 는 보퉁이 모양을 하고서 군데군데 놓여 있다.

화가 하민수씨는 <나는 왕이로소이다> 연작에서 댄폼에 넥타이를 맨 남자 모습을 천 위에 박음질해 전시하고 있으며, 화가 양주혜씨는 커튼·식탁보·이불보 등 여성적 공간 속의 천들을 여성 특유의 수공예적인 방법으로 다듬어냈다. 대체로 이들의 선과 면에는

남성적 대담성과 자발성 대신 의도적인 망설임과 떨림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미술 평론가 김홍희씨는 천 작업이 이 전시회의 여성주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남성적인 표현 양식을 대치 또는 거부한다는 면에서 매우 정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평가 최민서



<숙녀와 청녀> : 류준화, 오일 페인팅과 오브제.

매체와 양식의 파괴는 여성주의 미술이 지향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 양식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통적 매체를 떠나 형질 콜라주·설치·퍼포먼스·비디오·사진 등 그간 관심을 끌지 못하고 버려졌던 매체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 "더 이상 언더그라운드 아니다"

윤석남(화가) 박영숙(사진 작가) 김 영(목사) 한영애(가수) 등 네 여성이 공동으로 작업한 <이제 크신 어머니께서 자고깨니>를 감상하는 일은 우리나라 여성주의 미술이 누구를 향해 어떤 발언을 하고 싶어하는가를 파악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이 작품 앞에서 관람객이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은 흰 광목에 커다랗게 아플리케(여러 빛깔, 여러 모양 천을 다른 천에 붙이는 수예)한 여성의 자궁이다. 약 3m 길이 꽃잎 형상으로 조형된 자궁은 작품의 입구를 겸한다. 양쪽으로 갈라진 형질 자궁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서면 파랑과 주황의 커튼 숲을 지나게 되고, 곧 볼 꺼진 네모꼴 방에 도착한다. 새·물고기·꽃·나비·뱀 등 창조 이미지를 형상화한 그림으로 도배되어 있는 방은 동물을 연상케 한다. 이윽고 천장에서부터 '아흐음마, 음마, 음마...'라는 격절음이 환희·두려움·설레임·보챌의 환상으로 관람



객을 이끌기 시작하면 벽면에서는 탄생과 소멸을 암시하는 비디오 쇼가 펼쳐진다.

〈이제 크신 어머니께서 자고깨니〉의 작가 4인이 준비한 여성적 공간, 자궁에의 초대에 걸린 시간은 약 5분. 관람객들은 이 작품에서 남성에 대한 분노와 공격 대신 모체에의 귀의를 체험한다.

여성주의 미술이 급진적 여성 해방의 목소리는 낮추는 대신 촉각적 체험을 통해 주제를 나누어 느끼려는 시도는 전시장 곳곳에서 발견된다. 퍼포먼스 아티스트이자 설치 미술가인 이불씨의 〈무제〉는 버려진 공간 지하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다. 차가운 철제 침대, 작가 자신의 누드를 등신대로 실크 스크린한 하얀 시트(이 여자는 즉시 수혈이 필요하지만 그가 꽂고 있는 주사기와 연결된 링거액 병은 모두 비어 있다), 지하실 특유의 냄새와 습기, 바닥에 핀 주사액... 〈무제〉는 여성 미술이 왜 프로파간다(선전)라고 불리는지 이해하게 한다.

이불씨는 지난 89년 퍼포먼스 〈낙태〉를 통해 알몸으로 거꾸로 매달린 채 관객들이 울부짖으며 풀어줄 때까지 고통을 견뎌내는 신체 예술의 극한지점까지 보여준 적이 있다. 그는 늘 에로티시즘과 죽음의 순환을 암시하면서 자신을 그 중심에 설정하고 있는 것이

다. 피 흘리고 고통 받는 자화상을 통해 관객에게 삶과 예술이 별개가 아님을 경고하는 것은 여성 미술의 한 전형이다.

김홍희씨는 "이 불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 그 자신은 물론 여성 미술이 더 이상 언더그라운드 아트가 아님을 확인시켰다"라고 평가하면서 "퍼포먼스는 여성 미술을 구현해내는 가장 적극적인 형식"이라고 말한다.



이불 작 〈무제〉: 에로티시즘·죽음의 순환으로 여성성을 강조했다.

지난 86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미술전이라고 불리는 〈반에서 하나로〉전 이래 여성 미술은 가장 많은 실험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미술 영역이다. 〈반에서 하나로〉이 외에도 여성미술연구회가 87년부터 〈여성과 현실〉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 여성 미술과 그 변속의 양상, 여성의 표현, 표현 속의 여성성〉(91·한원갤러리)과 〈여성, 비어 있

는 풍경〉(92·갤러리아미술관) 등의 전시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드러내온 소외와 고통의 여성상은 '개인적인 분노의 관념적 표현에 불과하다'거나 심한 경우 '지분 냄새만 물씬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소제주의와 조형의 문제는 여성 미술이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

"여성에 대한 남성적인 언어를 모두 거부하거나, 여성적인 경험을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야 했다"는 윤석남씨의 진술은, 초기 여성주의 미술가들의 부담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 민중운동의 기반 위에서 시작

학사모를 쓴 부인이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현모양처〉, 보석에 낚여 빠진 〈L부인〉, 남성들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나일을 향하여〉 등이 발표된 87년의 〈반에서

하나로〉전이 나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여성의 문제를 사회 구조의 문제로 그려내기 시작한 여성 미술의 기원전이었다면, 이번 전시회는 여성 미술의 언어를 다양화하고 기호화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다.

김홍희씨는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은 민중 미술을 모체로 태동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 여성을 위한 여성의 미술관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여자의 누드가 걸려 있다. 그러나 여성이 살아서 그곳에 진입하기란 불가능하다.”

뉴욕을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 미술운동가들은 백인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화단과 미술사에 대하여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지난 83년 문을 연 한국미술관은 여성들이 설립해 여성들의 힘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 유일의 여성 미술관이다. 金允順 관장(전 국립현대미술관 상임이사)은 당시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쓰이고 있던 가회동 한옥 건물 한 채를 건물주이자 수집가인 박유성씨(재미)로부터 7년간 무상으로 임대받게 되자 여성 회원 30명을 모아

미술관으로 개조했다.

지금 한국박물관의 연구 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30명에는 재벌 총수 부인이 일부 포진하고 있으나 대개 여성 미술에 각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다.

김관장은 처음에는 '여자들이끼리 하는 일이 며칠이나 갈까' 하는 소리를 들은 것도 사실이라며 개관 당시를 회상한다. 그러나 한국미술관은 개관 이래 하루도 쉬지 않고 각종 기획전·초대전과 이문·실기 강좌를 열어왔으며, 정회원 2백명인 회원 미술관으로 착실히 성장해 왔다. 특히 재미화가 김원



김윤순 한국미술관장

숙, 조각가 정보원·차우희 씨의 한국 데뷔전을 개최하는 등 주로 여성 미술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여성 화가들이 남성들에 비해 작품에 대한 열정이 뒤지지 않는 데다 결코 과장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다. 또한 남성 화가들의 작품보다 싸게

팔려야 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한다.

한국미술관은 가회동을 떠나 예술의전당에서 1년여 더부살이를 한 뒤 서초동에 안착했다. 최근 용인 마곡리에 자매 전시관인 갤러리한국을 개관해 페미니즘 종합 기획전을 개최한 김관장은 '한국 여성 화가의 세계화'를 한국미술관의 다음 과제로 삼고 있다. ■



맥락 속에서 탄생했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 80년대초 게릴라 걸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일단의 여성 화가가 뉴욕의 전시장에 출몰해 남성 중심의 장식 미술과 미인의 죽음을 가장 시적인 주제로 파악하는 초현실주의 화풍 등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페미니즘 미술운동은 불붙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왜 위대한 여성 화가는 없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출발했다. 구미의 페미니즘 미술운동이 반핵반전운동·녹색운동·청년운동과 함께 문예사조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면 한국의 여성 미술운동은 민중운동의 기반 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함께 사는 땅의 여성들>(87) <제국의 발톱이 핏쥐고 간 이 산하에>(89) 같은 대형 걸개 그림은 여성 미술이 거둔 작은 수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발견은 한국의 여성 미술이 우리 화단에서 국부적이지만 나름대로 지형을 마련하게 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 미대 재학생 중 70%가 여학생

추상 미술을 섬기는 모더니즘의 전통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백인 남성의 눈으로 기술되어온 서양 미술사의 전통을 부정하는 페미니즘의 시대 정신이 한국 화단에 도착한 지 십수 년. <여성, 그 다름과 힘>전은 민중 미술과 모더니즘의 만남을 통해 본격 여성주의 미술 시대를 연 셈이다.

미술 평론가 최태만씨는 우리 사회에 불어온 포스트모더니즘의 태풍과 성숙한 여성의 자의식, 여성 미술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여성주의 미술의 등장 배경으로 파악하면서 여성주의 미술을 '80년대의 산물'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현재 미술 대학 재학생 가운데 70%가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남성 화가들과 다른 감각, 다른 재료를 통해 성장한다면 우리나라 여성 미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재의 신화를 부정하고, 협동 작업을 통해 익명의 명예를 선택하려는 여성 미술가들의 운동은 한국에서도 시작되었다. <여성, 그 다름과 힘> 전시회에 참여한 여성 미술가 19명은 한국 화단의 게릴라로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3월26일~4월25일 서초동 한국미술관과 용인 갤러리한국에서 동시 전시된다(0331-284-0471).

金賢淑 차장대우



티셔츠 위에 : <결핍과 망각의 염색체>.

## 여성상 뒤엎는 '게릴라 걸'

### 여성 미술운동의 전위 조경숙씨

여성 미술운동이 제도화한 신화와 환상을 해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趙璟淑씨(36)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력을 가진 작가이다. 그는 캔버스에 집착하는 대신 사진·잡지·판화 등 남성들이 돌보지 않는 매체를 발견하고 자기 아틀리에로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 92년 현실문화연구팀과 함께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를 기획해 그중 한 파트의 이미지 표현을 맡자 그는 매우 대담한 시도를 했다. 광고용 여성 사진과 광고 문구를 콜라주 기법으로 병치하면서 자기 모습을 그 이미지 전략의 제단에 바친 것이다. 즉 화가 자신을 모델로 내세움으로써 기존 이미지의 효력을 무력

화하고 여성의 신비화를 저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배우·사진사·광인·괴물 등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는 중성의 젊은이로 분장한 후 변신한 자기 모습을 이미지화하는 조씨의 작업은, 신디 셔먼과 같은 구미 포스트모더니스트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대량 복제는 가장 강력한 소통 수단"

평론가 김홍희씨는 이를 "매저키스트적 이중 억압과의 대면"이라고 평가했는데 그의 작업 정신은 이번 <여성, 그 다름과 힘>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작품 <관리되는 육체들> <진혼곡> 등에는 노동하는 육체와 환락의 육체들, 또는 분단사가 낳은 여성의 비극을 드러내는 윤금기와 김급단의 상반신 사진이 등장하는데, 그 이미지의 주인공은 여전히 화가 자신이다.

특히 <결핍과 망각의 염색체> 연작은 여성의 생산 기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드러낸다.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의 몸을 결합시킨 후 잉태된 태아의 이미지를 그 위에 배열한 작품 <결핍과 망각의 염색체>는 티셔츠 위에 실크 스크린된 뒤으로써 표현되고 작가 자신이 그것을 입어보임으로써 완성된다. 그는 "잉태라는 생산 행위가 양성적 친화의 소산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밝히면서 '너무 자학적이 아니냐'는 시선에 응전하고 있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뉴욕의 온타리오 미대 실험미술과를 졸업한 조씨는, 귀국 후 민족미술협회에 가입하면서 가장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젊은 여성 미술가로 등장했다. 그러나 남성들의 권위가 이끌어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도권 미술에 대한 그의 도전은 계급 이데올로기와 성 이데올로기라는 이중의 장벽 앞에 놓여 있다.

여성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존 시선과 방법을 전복하려는 그의 시도는 반드시 '대중적 매체 활용'이라는 방법을 수반한다. 그는 "대량 복제야말로 여성 미술의 가장 강력한 소통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결핍과 망각의 염색체>가 티셔츠에 인쇄된 것은 대량 복제에 대한 조씨의 신념의 표현이다.